금융업 제친 의약연구개발…연봉 킹 회사는 '메지온'

재벌닷컴 조사 법인 2306개사 직원 연봉 순위

'메지온' 1억2100만원·신한금융지주 1억700만원
기아·현대차 9700만원 '1억 클럽' 근접

국내 기업 중에서 샐러리맨(월급쟁이)의 평균 연봉이 가장 많은 '신의 직장'은 어디일까?

연봉 기준 국내 최고의 직장은 수출 대기업이나 금융회사가 아닌 의약 연구개발업체가 차지했다. 또 전통적인 고액 연봉 업종인 금융권 회사들이 연봉 상위권에 가장 많은 이름을 올렸다.

5일 재벌닷컴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12월 결산 법인 2306개사의 2014회계연도 직원 평균 연봉 순위를 조사한 결과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이 1위를 차지했다.

메지온은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이 1억2100만원으로 2013년 1억3542만원에 이어 2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이 회사의 직원 수는 남자 17명과 여자 2명 등 모두 19명뿐이다. 다만, 남자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3천100만원으로 여성 평균 3600만원의 3.6배에 달해 성별 간 연봉 격차가 컸다.

메지온은 동아쏘시오홀딩스그룹 계열의 신약 개발 전문기업으로 발기부전 치료제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등을 주로 판매한다. 그러나 메지온은 2년째 당기순손실을 내는 등 적자를 지속했다.

'고액 연봉'으로 잘 알려진 한국거래소의 지난해 평균 연봉이 1억1100만원으로 메지온을 소폭 밑돈다. 다음으로, 직원 평균 연봉이 많은 곳은 신한금융지주가 꼽혔다. 신한지주의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은 1억700만원이었다.

지난해 처음 억대 평균 연봉 대열에 진입한 나이스홀딩스(1억523만원)와 코리안리재보험(1억500만원)가 4~5위에 이름을 올렸다. 코리안리의 직원 평균 연봉은 2013년 8900만원보다 18.0% 늘어나 연봉 상위 50개사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나이스홀딩스의 평균 연봉도 7.5% 증가했다.

직원 평균 연봉은 KB금융지주(1억200만원)와 SK텔레콤(1억200만원), 삼성전자(1억200만원), 한국기업평가(1억원), 서울도시가스(1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한국토지신탁은 9971만원으로 1억원 턱밑까지 올라왔다.

자동차 생산기업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는 각각 9700만원의 평균 연봉을 기록, 1억원 연봉에 근접했다.

이와함께 주요 금융회사 20곳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곳의 지난해 남자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각 금융회사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증권·생명보험·손해보험·카드 등 5개 업권, 총 20곳의 주요 금융회사 중 남자 직원의 평균 급여가 1억원을 넘는 데가 모두 10곳이었다.

은행권은 주요 5곳 가운데 4개 은행의 남자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웃돌았다. 신한·KB국민·하나·우리·외환 등 5개 은행 중에는 우리은행(평균 9500만원)을 제외한 4개 은행의 지난해 남자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었다. 외환은행이 평균 1억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이 1억4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신한과 하나은행도 각각 1억300만원과 1억원으로 파악됐다. 신한과 하나는 2013년에는 9800만원과 9500만원에 그쳤지만 지난해 '1억원 대열'에 합류했다.

증권 업종에서는 삼성·NH투자·대우·신한금융투자 등 4곳 중 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1억원 클럽'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의 남자 직원 평균 연봉이 각각 1억100만원 수준이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우규승 건축가가 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시민들에게 문화전당 건물의 설계 철학을 들려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문화전당으로 도심에 녹지 선물하고 싶었다"

설계자 우규승 건축가 비전포럼 참석 시민과 전당 투어

"어린이문화원은 건물처럼 보이지만 사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설계한 우규승(73) 건축가가 지난 3일 문화전당 투어에 참가한 시민 200여명에게 어린이문화원 건물의 설계 철학을 설명하자 모두 고개를 갸웃했다. 그는 웃으면서 "어린이문화원은 건물 내부에 체험장 등 별도의 다양한 공간을 지을 수 있도록 배려한 공간"이라며 "그런 맥락에서 건물을 땅이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201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비전포럼의 특별프로그램(빛을 향한 동행)에서 해설자로 나선 우규승 건축가는 문화전당의 아시아문화광장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공연과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마당의 개념을 도입한 곳이자, 문화전당의 5개원(민주평화교류원, 예술극장, 문화창조원, 정보원, 어린이문화원)을 연결하는 광장"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 금남로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된 도심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전당의 건축철학인 '빛의 숲'을 상징하는 문화생태공원으로 투어 참가자들을 이끌었다. 문화창조원 옥상에 조성된 공원으로 사각형 유리로 만들어진 천창(天窓) 70여개가 설치돼 있는 곳이다. 그는 "천창(天窓)은 낮에는 햇빛을 지하에 있는 문화전당 건물로 끌어들이고 밤에는 불을 밝히는 두가지 역할을 한다"며 "공원에 심어진 나무들이 자라면 사계절의 표정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밤에는 숲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화전당을 지하에 짓기로 한 것은 옛 전남도청 등 광주항쟁 유적을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와 함께 도심에 녹지를 만들어주고픈 마음이 담겨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 '지상공원 지하건물' 개념을 도입한 문화전당은 옥상정원을 포함해서 4만여평의 녹지공간이 조성돼 있다.

한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아시아문화개발원이 3일 개최한 '201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비전포럼'에는 민족주의 비판서 '상상의 공동체'를 쓴 베네딕트 앤더슨 미국 코넬대 명예교수와 미건 모리스 호주 시드니대 교수, 조이스 류 대만국립교통대 교수 등이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가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에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광산구 용곡동 2017년 8월 개원…국비 198억원 투입

야생동물 질병의 컨트롤타워를 역할을 할 전문연구기관인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이 광주에 설립된다. 건축비만 198억원으로 전액 국비다.

광주시는 5일 "국가 주도로 야생동물 질병의 체계적인 진단과 치료, 조사·연구 등 맡을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 광주에 들어선다"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부설 연구원으로 전액 국비(198억원)가 투입된다.

광산구 용곡동 일원 부지 3만7천㎡에 전체 건축면적 7천300㎡ 규모로 들어서게 될 연구원은 올해 실시설계 용역과 부지 매입 등을 거쳐 2017년 8월 개원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국가의 대응력을 높이고 야생동물 질병으로부터 가축과 인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설립의 주목적이다.

광주시는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2013년부터 야생동물 질병을 체계적으로 진단, 치료, 조사, 연구할 수 있는 연구원의 설립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 등을 50여 차례 방문해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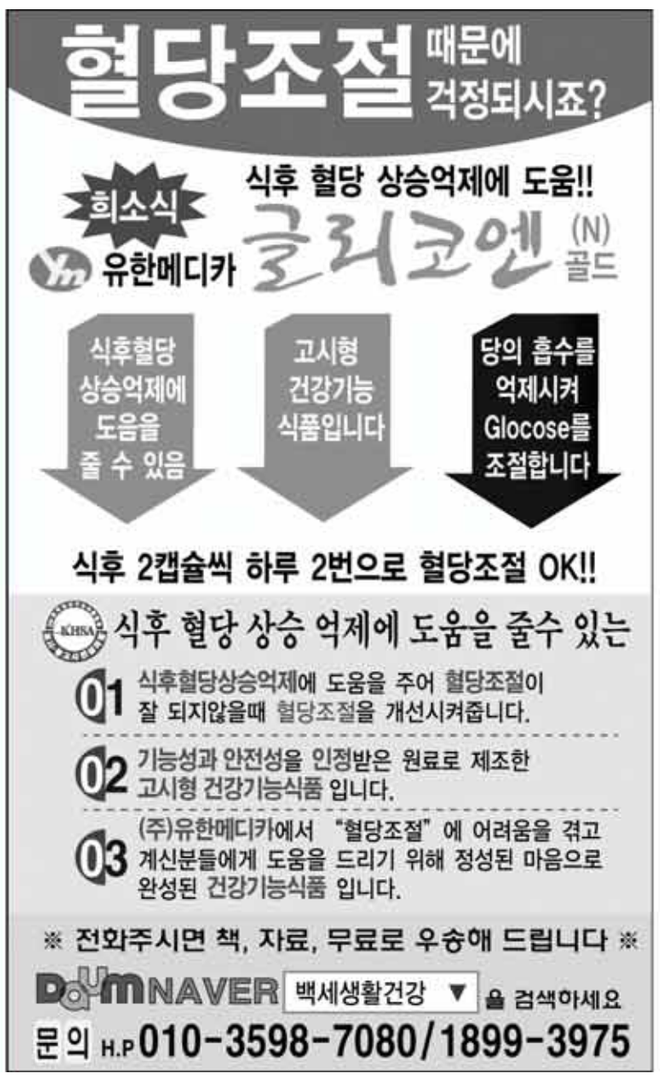
신지~고금 연도교 '장보고 대교' 명명

2017년 개통…국가지명위, 15곳 명칭 확정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최근 국가지명위원회를 열고 전국에서 신설되는 교량과 터널 15곳의 이름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완도군의 신지도와 고금도를 연결하는 교량은 통일신라시대 이 지역에 청해진을 설치해 동북아 해상무역을 관장하던 장보고 대사의 이름을 따 '장보고 대교'로 명명했다. 2017년 개통 예정인 장보고 대교는 이순신 대교(여수시 묘도와 광양시 금호동 연결), 김대중 대교(무안군 운남면과 신안군 압해읍 연결)에 이어 역사 인물의 이름이 붙여진 세 번째 교량이 된다.

장성군의 야은~원덕간 국도 1호선 확장공사에 따라 설치되는 터널과 교량은 각각 우지교, 덕진교, 대악교, 풍기교, 용도터널로 각각 명칭을 정했다.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을 잇는 총연장 2362m의 지하연결 터널은 '위례터널'로 확정했다 위례신도시의 관문 역할을 하는 이 터널은 오는 7일 개통 예정으로 국토부는 이 터널이 개통되면 복정사거리 인근의 차량 정체가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